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홍행춘(여, 1929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2: 이승정(여, 1930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3: 고옥봉(여, 1935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• 줄거리: 구좌읍 상도리와 하도리에 놓인 신작로 부그네는 헛게가 출몰하는데, 이 헛게는 자장가를 부른다고 한다.

옛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, 창피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는 처녀를 묻었는데, 이때 아기구덕과 이불도 함께 넣어주었다고 전한다. 그 뒤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되면 이 부그네에서 여인이 자장가 부르는 소리가 늘 들렸다고 한다.

헛게는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곱게 차려 입은 바구니 든 여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, 길을 지나던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큰 기침을 하면 없어진다고 한다.

헛게에 홀리게 되면 정신을 차렸을 때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헝클어져 있다고 한다.

[제보자2] 거 애기자랑 허는 디라고 웅이자랑 허는 디도 잇엇고렌…….

[제보자3] 게. 웅이자랑 웅이자랑 애기 막 흥그는 소리허고.

[제보자2] 흥그는 소리.

[조사자] 어디서마씨?

[제보자2] 저. 신작로.

[제보자1] 웅이자랑 허는 디는 처녀가 아이를 베니까 이제 여기서 아기를 나면 쟁피허니까 구뎅이를 크게 파서, 막 이불이랑 애기구덕이랑 애기 지는 거 담아놨어, 그 애기 벤 어명을 담아서 묻어부니, 비 올라 하믄 애기 나서 흥그는 “자랑, 자랑 우리 애기 제와 도라, 느네 애기 제와주마. 아니 제와주민 총총 베로 묶어당 바닷물러레 들이쳤당 내쳤당 허켜.”

그 소리 허다, 도체비가이.

[제보자2] 헛게지. 겨면 또 그 날 궂인 때는 그 헛게가. 이런 여자가 고대바구리 들러그네 곱게 출련 뎅기단 즈름에 막 따라가다그네, 어드레 가다근 기침이나 ‘캉!’ 허믄

그것이 엊어진다 헤여.

[제보자1] 엉으곡 데곡 가시밭더레 그냥 메다청 들어 메다쳐동 둘았주. 깨낭 보민 막 얼굴
튿어지곡 옷도 다 끋어지곡.

[조사자] 이젠 엊어마씨?

[제보자2] 이젠 엊어.

[제보자1] 아. 차가 잊어부니 겁낭 나와지느냐.

[제보자2] 경 허고 또 밤이 막 걷지도 안 했주, 그때 ? 추룩.

- 핵심어 : 도체비, 헛게, 웅이자랑, 처녀, 아이, 구뎅이, 비, 여자, 근대바구리, 기침, 자장가, 도깨비